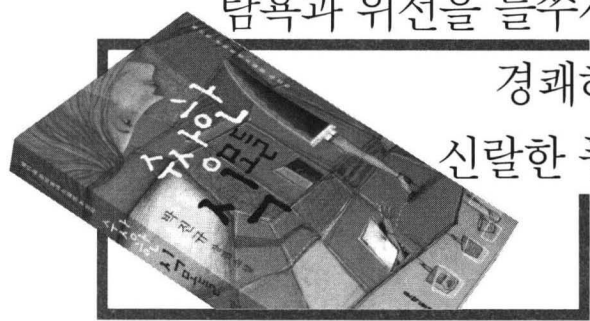


‘문제작’에서 배우는
경영의 미래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 현대편》
이동현 지음 | 더난출판사 | 664쪽 | 값 30,000원

탐욕과 위선을 들쭉시는
경쾌하고
신랄한 풍자



《수상한 식모들》
박진규 지음 | 문학동네 | 335쪽 | 9,500원

앞서 나온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 고전편》이 경영학 100년의 흐름을 시대별로 나누어 조망했다면, ‘현대편’은 ‘고전편’의 후속으로 현대 사회의 흐름을 주도한 경영학 주제를 ‘고객, 기술, 전략, 변화, 미래’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경영서 22종을 재해석했다.

특히 구성과 내용면에서 기존의 책을 소개하는 도서와는 또 다르다. 기본적으로 본문은 개별 책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담은 ‘에센셜’, 주요 내용을 소개한 ‘콘텐츠’, 현대적 시사점을 제시한 ‘뷰포인트’로 구성됐다. 특히 각 장 처음의 ‘프리뷰’와 마지막의 ‘리포트’ 꼭지에서는 핵심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제시, 이론과 현상이 어떻게 만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고객을 새로이 이해하다’라는 첫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체험마케팅》은 프리뷰에서 대표적인 외국 성공사례로 든 스타벅스를 소개하고 있다. 1983년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 출장길에 그곳 전통적인 커피문화에 매료된 시점부터 시작해 스타벅스가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종합 커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간략히 분석한다. 그리고 에센셜과 콘텐츠, 뷰포인트를 통해 《체험마케팅》이라는 책의 핵심 아이디어와 주요 내용, 그리고 현대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하고, 국내의 체험마케팅 성공사례인 태평양의 ‘더 아모레 갤러리’를 분석했다.

또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주류 경제학 틀 안에 있는 책보다는 《꿀벌과 게릴라》《공익마케팅》《성공기업의 딜레마》 등 문제작을 과감하게 선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경영이 고민해 온 주제들은 무엇인지, 한국의 경영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극적으로 경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신동섭 기자

대학을 졸업할 무렵,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음을 발견한 박진규는 혁명을 꿈꾸는 충실한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다. 《수상한 식모들》로 제 1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작가는, “약간 귀염성 있고 애련한 이 노예는 소설가라는 이름을 슬쩍 바꿨주머니에 집어넣게 되었다”는 수상소감을 적고 있다.

황당무계하게만 들리던 그의 이야기들은 어느새 심상찮은 기운을 내뿜으며 읽는 이의 혼을 쏙 빼놓는다. 기발한 상상력과 그 발상의 불온함이 신선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 역사에 대한 전복이 빛을 발하는 지점은 단군 신화의 ‘속편’을 완성해낸 부분이다. 그는 ‘곰이 여성의 시조라면 그때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다가 결국 복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여자가 된 호랑이, 바로 ‘호랑아낙’이란 여성들을 탄생시켰다.

이 ‘호랑아낙’들은 생존을 위해 남성들의 거대한 억압체제와 맞서왔다. 썩어 빠진 왕조와 탐관오리, 뽀뽀한 양반에 맞서 은밀하게 대항한 호랑아낙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상한 식모들’은 부르주아 가정에 잠입, 그들의 위선을 까발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떠맡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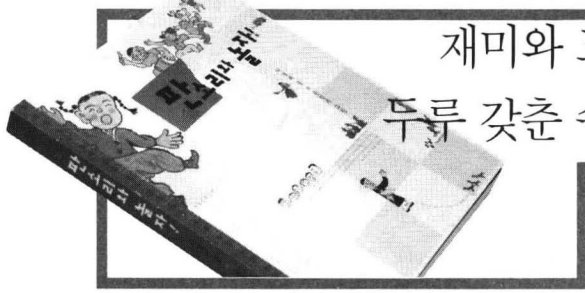
경쾌하게 역사를 질주하던 이야기는 현대의 한 가정으로 옮겨온다. 온라인 하녀 게임에 빠져 있는 실업자 아빠, 하루 종일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치스런 엄마,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초등학생 천재 동생, 집 나간 형을 둔 비만 고등학생 ‘나’. 이 심란한 가정엔 ‘마지막 수상한 식모’ 순애씨의 사연이 숨겨져 있다.

책은 경쾌하고 신랄한 풍자 뒤로 평온한 일상이 낯설어 보이게 하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권력과 부와 욕망에 집착하느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던지는 작가의 도발적인 경고 때문일 것이다.

김지희 기자

판소리, 고것 참 재밌네!

재미와 교양
두루 갖춘 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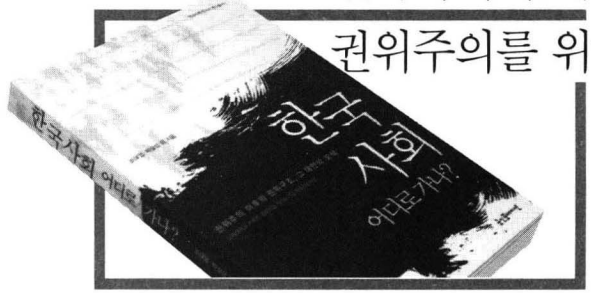


《판소리와 놀자!》

이경재 글 | 윤정주 그림 | 참비 | 208쪽 | 값 9,800원

한국사회의 새로운

권위주의를 위하여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조대업 · 박길성 외 지음 | 곳인포메이션 | 312쪽 | 값 15,000원



보아, 동방신기, 신화는 “‘당근’ 안다”고 했다. 근데 동편제, 서편제를 물어보니 “제사 이름이야?” 한다. 아이들 욕만 할 게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R&B나 힙합에 대한 얘기는 술술 피면서 우리 것은 무조건 지루하다면 광계로 “몰라” 소리를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판소리를 공부하는 아이의 일기와 사연을 담은 이 책을 보니 “판소리 고것 참 재밌는 음악”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판소리 고장 전라북도 남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약국 집 딸 윤실이가 '동편 판소리 연수원' 선생님을 만나 소리를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편 판소리를 연구해왔다는 저자는 동편 판소리 '홍보가' 전수자인 전인삼 선생과 제자들이 함께 한 소리 여행을 토대로 글을 썼다. 여름방학 동안 지리산 자락에서 수련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는 픽션화된 동화적 스토리와 판소리 정보들을 어색함 없이 잘 혼합해 동화적 완성도와 교양서적 가치를 두루 뽑내고 있다.

저자는 픽션적인 요소는 아이의 목소리로, 논픽션적인 요소는 구수한 사투리로 전달하는 노련한 글솜씨를 발휘했다.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술술 다 읽히는 글이다. 특히 산 공부가 힘들어도 망쳤다 온 예랑이, 랩이면 랩, 팝송이면 팝송 등 모르는 음악이 없는 봉근이 등 실존인물 같은 생생한 캐릭터를 설정해놓고 스토리를 탄탄히 엮어나가면서 중간 중간 판소리 정보를 빠짐없이 소개한 점에서 짜깁기형 교양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공력이 읽힌다. 특히 창, 아나리, 진양조, 중모리, 춘향가, 홍보가 등 판소리의 개념과 종류 등 판소리 명창에 대한 일화는 윤실이 일기만큼이나 재밌다. 귀신에게 울음소리를 배워 '귀곡성'을 완성했다는 송홍록 명창, 천민들이나 하는 판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 어른들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춘향가' 한 대목을 완벽하게 불러 목숨을 건진 권삼득 명창의 이야기는 소설로 써 봐도 될 만큼 드라마틱하다.

김청연 기자



온 국민을 생명공학의 '아마추어' 전문가로 만든 '황우석 사태'는 성과지상주의, 속도주의, 외형주의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그토록 열광하고 신뢰했기에 권위로서 인정받았던 '지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극도의 허탈감을 가져왔다. 그 어떤 항변도 우리가 느끼는 '지식 권위'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메워주진 못한다. 국회의 원, 교관, 가부장적 권위,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위까지 무너지는 (무너지) 사회다.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는 이처럼 권위에 대한 상실감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변동에 따른 권위구조를 다룬 1부에서는 권위주의를 민주적, 혹은 사회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권위(권위관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을 빌려 사회적 무질서와 시민들 간의 전쟁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위해서는 국가라는 권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권위의 분류에 있어서는 법적·합리적 권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세 가지로 나누고 2부와 3부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권위의 위기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권위 상실의 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다. 아울러, 지식 권위의 보호막 역할을 하던 신비성의 베일을 벗겨내는 정보화의 진전, 교관의 몰락,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권위의 상실은 '존경의 철회'에서 나온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존경받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며 '자율세대'의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성세대는 '변신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홍이현 기자